학습자 본인은 개발자이다. 학습자의 성격은 모험심이 강하다 신기술을 접목하고 기존의 것 보다 더 나은점이 있고 개선점이 발견되면 바로 적용한다. 또 추진력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 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일을 할때 열과 성을 다하나 일에 진척이 없고 해결이 잘 안되면 금방 지치는 burn out이 금방온다.

팀웍을 중요시한다. 프로젝트 수행은 본인 혼자서 하는게 아니라 같이 협동해서 개발하고 타 부서와 접촉을 많이해야 하기 때문에 팀원간 불화를 싫어한다 긍정적인 성격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먼저 나서고 다가간다. 그럼에도 다가오지 않는사람은 그냥 두고간다. 모두가 같이갈수 없기에 긍정적이고 방향이 같은사람들 끼리 만 있고싶어한다.

학습자는 빠른 피드백을 중요시 해 좋고 나쁨을 즉각적으로 표현한다. 프로그램상 제품상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수습을 해야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혼나는 것이 두려워 감추려 하지 않는다.

이는 경험에서 나온것인데 문제는 항상 암과 같아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프로젝트 시작때 초기 설계부터 미흡점이 있는 걸 싫어한다. 중간에 투입되더라도 앞서 있는 것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진행을 한다. 진척이 없고 burn out이 와버려도 포기 할 수 없어 인정하고 외부 조력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진행중인게 아깝더라도 판을 엎고 새로이 시작한다. 이럴 때가 나 자신에게 화가나고 무기력함을 많이 느낀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상 어떤 인간과 부딪히는 것은 매우 필연적인 일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인간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자신의 원래 성격을 바꾸기도 하고 아예 이것에 대해 피로함을 느껴서 그대로 사는 사람도 있다. 즉 각자의 방식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추구해나가는 것이다.   
인맥을 관리하라는 사람도 있고, 다 부질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논쟁거리에 올랐다는 것만 보아도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관계가 늘 중요한 이슈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격이다. 성격은 개인의 독특함을 반영하는 안정된 심리적 특성으로 개인의 선천적인 기질 그리고 후천적인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러한 성격은 청소년기에 만들어져서 청년기 초기에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람의 대처법을 다르게 만들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방식과 요소들을 결정한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성격 5요인에 따르면 나는 어떤 성격인지를 이야기 해보고, 각 상황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성격이란 개인의 독특성을 반영하는 안정된 심리적 특성이다. 개인의 선천적인 기잘과 후천적인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 이며, 모든 성격 특질은 유형이 아니라 차원이다. 인간관계의 만족도, 안정성, 친밀도, 지속기간, 스타일등 밀접한 관계가있다. 성격 5가지 요인은 외향성, 신경과민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이다. 성격의 5가지 이론으로 볼 때 나의 성격을 분석해보자.  
나는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취미를 가진다. 그러한 연관된 지역에 가거나 체험이나 활동을 가지게 되면 감각적이고 감수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높이 가지게 된다. 또한 나와 공통적인 취미를 가지게 된 사람들을 만남을 가지기 위해 기회가 많은 곳을 찾아다니게 되고 친분을 더 쌓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은 만남을 가지고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 외향적이 성향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체험을 좋아해 자기개발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상관없는 많은 일들을 가지게 되면서 시끄러운 현대사회에서 요즘 조용히 혼자있는 편을 더 좋아하게 되고 혼자서 하는 일을 찾게 되는 일이 많아 되어 약간에 내향적이 성격을 갖게 되었다. \